

# 칼빈의 교회관과 ‘예수사랑의 共同體’

## Calvin’s View of Church & ‘Jesus-Loving-Community’

안 인 우\*  
Daniel Ahn

—〈目 次〉—

- (1) 信徒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Die Kirche als Mutter der Glaubigen)
-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Die Kirche als leib Christi)
- (3)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로서의 교회(Die Kirche als Menge der Auserwaehnten)
- (4) 可視的 교회와 不可視的 교회
- (5)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우리는 무엇을 찾아 살아가나?

하나님 나라(바실레이아 투 데우/‘예수사랑의 공동체’)를 찾아 살지.

우린 누굴 찾아 굽이 굽이 인생 행로를 쉬지 않는가?

우리 주 하나님, 곧 ‘예수사랑하시는 聖三位一體神’(誠敬神)을, 주의 얼굴을 찾아 살아가지.

폭풍우가 그칠새 없는 이 거친 세상에 우린 무슨 힘으로 살아 가나?

‘날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갈 2:20)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誠心敬愛)의 힘으로 살지.

그렇다, 우리는 우리 주 聖三位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天城을 향하여 영원한 순례의 길을 떠나 나아가는 무리를 우리는 聖徒라 하고, 그들을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부름받아 나신 ‘教會’(에클레시아)라 일컫는다. 이 무리는 다름 아닌 우리 곧 예수사랑(誠心敬愛)하는 사람들이다.

\* 조직신학(성경신학, Dr.Theol.), 조교수.

우리〔聖徒, 教會〕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改新教 神學의 기초를 놓은 칼빈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아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간 칼빈을 연구한 많은 연구가 가운데 니이젤<sup>1)</sup>에 의하면 칼빈에 있어서 교회는 (1) 信徒들의 어머니요 (2) 그리스도의 몸이요 (3) 선택받은 무리들이요 (4) 교회에는 可視的 교회와 있고 不可視的 教會가 있으며 (5) 참 교회와 있고 거짓 교회와 있다.

### (1) 信徒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Die Kirche als Mutter der Glaubigen)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질서로서, 昇貴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대한 당신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주께서 교회에 맡기신 職任의 수행을 통하여, 그리고 주께서 교회에 사용하라고 명하신 地上의 표지들을 통하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가 같은 동료 인생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제도를 당신에 의하여 설정된 거룩한 질서로서 보고 계심을 증거하신다.’<sup>2)</sup> ‘주께서는 이 질서를 배설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현존이 당신이 세우신 기관 가운데서 인식되기를 원하신다.’<sup>3)</sup>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만남의 장소이다(Die Kirche ist der Ort der Offenbarung Gottes, der Begegnung zwischen Christus und uns).

물론 하나님은 이 제도에 묶여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주께서는 教義의 正統에 우리를 묶어 놓으셨으므로<sup>4)</sup> 우리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혹시 다른 방법들을 취택하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 정통적인 교의에 대한 拘束性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요 지속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칼빈의 입장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사도적 진리 전승 위에 서는 우리 성경신학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하나님은 無所不在하신 분이시요 全知全能하신 분이시지만 인간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 더듬어 올라 올 수

1)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Berlin-Lichterfelde, 1938

2) CR 48, 204

3) OS 5, 8, 31.

4) OS 5, 9, 16

없기에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전 1:21). 즉 인간이 나름대로 愛知하는 활동(philosophia)들로 말미암아서는 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음을 인간의 정신 문화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아니한가. 인간은 그 주어진 宗望的 본성 上 望—하는 능력을 타고 났다. 그러나 나름대로 望—하는 것으로서는 아무라도 참 하나님께로 이르지 못하였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新舊約이 증거하는 바처럼 自啓示(Selbstoffenbarung)하시었던 것이다. 이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하여, 이 증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엡 2:8) 생명의 진리 전승에 서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참 하나님에 대한 앎을 얻어 구원에 나아간다(요 17:3). 宗望的 觀照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뢰하지 않고 생각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러한 성경적 입장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약하는 것일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줍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랑을 온 천하에 선포하면서 이 사랑 안에 거하도록(요 15:9) 온 인류를 -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道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 초대하는, 땀과 눈물과 피를 쏟는 사랑의 受苦를 마다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닌가. 수수방관하면서 하나님의 -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나타난 - 뜨거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또 전하지도 않으면서 추상적인 사랑을 관념적으로 논하는 것은 歷史性도 具體性도 生命性도 없는 관념의 유희가 아닌지 自省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물론 한 순간에 다 자라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저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지 않으신다.’<sup>5)</sup> 이와 같은 칼빈의 견해는 우리 주님의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自意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2-13)라는 가르치심과 一脈相通하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수용하는 바이다. 실로 聖三位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이해력에 상응하게 당신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시었다. 그리하여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히 11:39-40).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못 선지자들보

5) OS 5. 8. 6

다도 나은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면 저들 믿음의 先進들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니? 그것은 오늘날 聖三位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인식함에 있어서 救贖史的으로 우리가 우월하다는 말씀이다. 저들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우러러 마지 않는 믿음의 先進이로되 聖三位 하나님을 믿어 우러러 사랑하는 구속의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니면 완전해지지 못하기에 우리가 저들보다 우월하다는 말씀이다. 그렇다, 오늘날 사도적 진리 전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미스테리온 투 데우, 골 2:2)의 감동과 감격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입각하여 ‘진지한’ 현대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파토스를 함께 하는 인간’(homo sympatheticus)<sup>6)</sup>까지를 말하는 놀라운 진리 인식에까지 나아왔다.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인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날로 자라가야 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 . .”(벧후 3:18). 이리므로 교회 안에는 聖三位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게 되어진 것이다. 본인의 본격적인 신학적인 一生을 되돌아 보아도,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는 문제가 제일의적 화급성으로 떠오르더니,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가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마침내 성령 하나님을 알아 모시며 환영하고 영접하며 나아가는 문제가 제일 과제로서 부각되어지는 체험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聖三位 하나님 하면 간단히 잘 알 수 있는 교리 같은데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아 다루어 보니 聖三位一體神論처럼 어렵고 힘든 敎義도 없지 않다. 이제 1978년 8월부터 1995년 正月 初旬까지 약 16년 여 동안 줄기차게 이 문제에 매어달리다가 적어도 사도적 2000년 진리 전승 가운데 가르쳐져 온 진리가 무엇인가를 비로서 깨닫게 되어진 체험을 한 필자로서는 참으로 진리 인식의 길은 길고도 險難함을 새삼스럽게 회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평신도로서 소박하게 인식하는 聖三位 하나님에서, 사도적 진리 전승으로서 - 교회를 침투하는 온갖 이단들을 막아내는 교리적 최후 보루로서 - 가르쳐지는 聖三位一體神論하고는 아득한 險路가 깔려 있다 하겠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단순한 믿음’ 곧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고전 1:23)의 피 공로를 우러러 믿어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바로 이 단순하고 소박한 예수 복음을 온갖 이단 사설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수행되어지는 신학 작업은 자못 至難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聖三位 하나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람하고 이 진리 인식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지 못한 사람하고는 그 진리 인식의 성장의 차이가

6) Cf. J.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Chr Kaiser Verlag Muenchen, 1972, VI. Der “gekreuzigte Gott”.

크게 나지 않을 수 없다.

눈 두 개를 정상적으로 가진 사람 보고 눈 하나 가진 사람이 당신은 나하고 다르니 病身(異端)이요 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한 語不成說이 어디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주 聖三位一體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의 진리 인식에 있어서 출애굽하여(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가운데) 홍해와 - 열사와 모래 바람과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지나 -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사람을 보고 아직 홍해를 건너지도 못한 자가, 아니 심지어는, 아예 출애굽도 안한 자가 즉 속으로는 不信者이면서 저 聖三位一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인식에 있어서 가나안 땅 까지 간 사람보고 당신은 이단이요 라고 한다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짓도 없지 싶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과거에도 있어 왔고 현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 나고 있다. 과거에는 예컨대 정통적 聖三位一體神論을 사도적 진리 전승에 입각하여 가르치는 칼빈을 세르베투스가 - 모든 反聖三位一體神論의 이단들이 늘 하던 버릇대로 성경에 三位一體神이라는 말이 어디 있소 라며 - 이단으로 몰아 부친 적이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세르베투스가 자신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입각한 사도적 진리 전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바가 없으니 겉허히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었으면 좋았으려만 그렇지 못하고 나도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니 내 주장이 옳은 것이요 라고 하면서 正統을 이단이라 하고 이단을 정통이라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니, 오, 통재라. 교회사 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슬픈 역사여. 바로 교회의 사도적 생명 진리를 지키는 聖三位一體神에 대한 신앙을 오히려 넌센스라고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다니. 여기에서 교회는 신앙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서 올바른 정통 신학과 신앙이 올바르게 전파되고 전수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聖三位一體神 信仰이 기독교 신앙의 정통으로, 만천하 모든 사도적 진리 전승 위에 선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눈치 챌' 사람들이, '나는 聖三位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걸으로는 말을 하나 속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非-非再함을 주목하면서 이에 대하여서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지켜 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로 매진해야겠다. 차라리 잘 모르면 '나는 성경에서 증거되어지는 바 聖三位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들겠사오니 한 말씀 들려 주시오' 라는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는 자는 복된 자일진저. 이런 겸허한 자리에서 진리 가운데 피차 배우고자 하는 자세<sup>7)</sup>를 견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無知와 不信을 노정함으로 자신도 망하고 교회도 어지럽힌다면 이는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실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7) 골 3 16.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성경이 즐기치게 증거하고 이에 따라 칼빈이 말하는 바 聖三位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됨을 명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사도적 진리 전승 가운데 가르쳐지는 聖三位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성장하여 가자. 스스로 다 된 줄 착각하지 말고 앞에 놓인 풋대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 가자. 오직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soli Deo gloria).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계 가운데 살므로 우리의 믿음은 발생하는 순간부터 모든 방면으로부터 攻掠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不斷히 당신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현존의 장소로서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 생활의 출발점에 불과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되신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사이의 부단한 有機的 生命의 紐帶가 보존되어야 할진대 우리는 우리의 地上的 全生涯에 걸쳐 교회에 의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마련해주시는 영혼을 위한 영의 양식을 輕蔑하는 자는 영적으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다.'<sup>8)</sup> 여기에서 칼빈은 교회를 일찍이 古來로 불리워진대로 단 한 마디로 定義하고 있다: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시다'(Die Kirche ist unsere Mutter). '교회가 우리를 회임해 낳아 그 가슴에 품어 기르어, 마침내 우리가 썩을 육체를 벗어 천사와 비슷하게 되는 때까지 우리를 그 보우하는 날개 아래 인도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생명(永生)을 소유하게 하니'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 불리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어머니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멸망에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sup>9)</sup>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와 같은 생명의 직임을 맡았으므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오직 거기에서 인간적이고 지상적인 모습으로 만나 주시마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칼빈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sup>10)</sup> 는 古來의 正統命題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故事役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적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전하는 職任을 맡은 - 어머니같은 - 생명의 기관이라고 보는 칼빈의 교회관에 우리 성경신학은 全的으로 同意한다. 교회가 말씀의 선포나 성례나 여러 활동을 통

8) OS 5, 8, 15

9) OS 5, 7, 7

10) cf CR 11, 25, 36, 578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다만 허울만이 '교회'일 따름일 것이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적으로 傳하는 곳ियो, 주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기관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생명 진리의 正統에 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의 참 생명이시요 영생이시며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사도적 생명 전승에 따라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신학적 논의에 있어서 칼빈의 明快한 입장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인 분명한 길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다. 聖三位一體神을 宣布하는 곳이다. 예수 생명을 전하는 곳이다. 聖三位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나아가서 聖三位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를 떠나서는 生命[永生] 곧 救援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다.

##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Die Kirche als Leib Christi)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노라면,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만 앉으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聖徒들이 集合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며, 머리되신 분에 있어서 모든 방면마다 우리는 성장하여 상호간에 하나가 된다.'<sup>11)</sup>

교회가 우리에게 聖役을 감당할 때 우리 자신은 교회 안으로 끌려 들어가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고 이 연합을 통하여 피차간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이 공동체는 어떤 인간적인 확신이나 결단에 기초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代贖의 은혜에 기초할 따름이다. 이처럼 교회는 딱딱한 기관이 아니라 상호 봉사하며 협동하는 공동체로서 생동하는 유기체라 할 것이다.<sup>12)</sup>

우리 주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는 -.

특히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교회관을 수용하는 칼빈의 견해를 우리 성경신학은 聖經神學으로서 당연히 수용하여 마지 않는다. 진실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하

11) OS 5. 44. 25

12) OS 5. 4. 3 · OS 1. 466.

나님의 아들의 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머리[誠主]되시고 우리는 몸[誠體]이 되는 전체적인 그리스도(Christus totus)(엡 4:13)(어거스틴)를 이룬다. 이 깊고도 오묘한 진리를 바울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오직 교회의 主人이심을 강조하면서 어느 개인이나 아니 모든 교회 구성원의 집합이거나 간에 교회의 主人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칼빈의 견해에 역시 우리 성경신학은 동의하는 바이다. 과연 교회를 다스리시는 主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시어야 한다. 어떤 인간이나 인간 집단일 수 없다. 다만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교회를 이끌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사실을 銘心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聖靈의 인도하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야 한다.

### (3)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로서의 교회(Die Kirche als Menge der Auserwaehlten)

칼빈은 특히 그의 基督教綱要 第一版과 요리문답들에서 교회가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됨을 강조하여 마지 않는다. 교회는 ‘천사들이든지 인간들이든지 인간들 가운데서는 이미 죽은 자들이든지 혹은 아직 살아 있는 자들이든지 선택받은 자들의 總數’이다.<sup>13)</sup>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이 교회라고 부르는 바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밝히 알 수 있다. 교회, 그것은 이 지상의 어느 특수한 교단만을 지칭하지 않고 聖經 66권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사도적 진리 전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어 聖三位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誠心敬愛/예수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찬[基督敎人]들을 말하고 나아가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불리워 간 聖徒들까지를 포함하며 심지어는 - 타락하지 않은 - 天使들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마만한 교회관은 실로 우리의 조부라운 교회 의식을 극복하여 그 지평을 역사와 영원에게까지 넓혀 준다.

‘하나님의 비밀한 선택이 교회의 근본’ (Die geheime Wahl Gottes das Fundament der Kirche<sup>14)</sup> 이라는 칼빈의 확신은 성경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그런

13) OS 1, 86

14) OS 5, 4 1



데 칼빈의 앞선 교회론에서 강조되어지는바처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인되고 아니 되고는 당신의 절대 擇定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 인간의 교만과 自高가 들어설 자리는 없는 것이다.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이시오 우리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해서 사변적인 명상이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며 誠存해야 함을 망각하거나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寶血 공로를 믿는 자들은 그렇다고 거꾸로 불안에 떨 필요도 없으니 이 예수 믿음 안에는 정죄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하나님의 영원한 聖定을 계시하기에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 가는 만큼 가며 서는 데서 서는 우리 성경신학은,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라는 칼빈의 교회관에 물론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한 인간들의 이해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이 그치지 않으므로 우리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빌어 이에 대한 論議에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2-13)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밖애가 아니라) 인간의 自由가 있고 인간의 자유함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상호 배제가 아니라 상호 - 긴장적 - 일치이다. 문제는 이 '緊張的 一致'가 긍정적인 방향의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 방향의 것이냐일 따름이다. 이 일치가 긍정적일 때 그는 구원에 나아갈 것이요 부정적인 일치일 때 그는 永滅에 나아간다. 하나님은 만흔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

#### (4) 可視的 교회와 不可視的 교회

만일 세계가 보이는 것 이상이 아니라면 세계는 얼마나 瘠薄할까?

만일 인생이 보이는 것 이상이 아니라면 인생은 얼마나 김 빠질까?

만일 세상이 보이는 것 이상이 아니라면 세상은 얼마나 더욱더 추악해지고 조악해질까?

거긴 영원도 없을 터,

거긴 영구 불변의 가치도 없을 터,

거긴 절대 좌표도 없을 터,

무의미하게 흔들리는 대로 먼지 이는 대로,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움직여야 하는 지 등의 이유도 없으면서

다만 弱肉強食의 정글의 법칙만이 횡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가 설 자리도 없이

苦難은 약자의 저주요

마키아벨리의 논리가 찬양받고

모두는 현세의 출세와 허영과 야욕만을 모두로 아는 가운데

萬人對萬人的 鬪爭(homo homini lupus) 만이 阿鼻叫喚처럼 연출될 것이다.

거긴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永遠無窮絶對한 의미가 부인될 것이며

거긴 '예수사랑하시는 聖三位 하나님' [誠敬神]이 세상 모르는 이단으로 규정될 것이며

거긴 '權謀術數의 達人' 들만이 큰 소리치고 자기 세상을 구가하는 지옥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썩어질 肉眼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세계는 이 썩어질 눈에 비치는 대로만이 아니며

.....

시간은 영원이라는 깊이,

공간은 주 하나님 안에라는 넉넉함,

인생과 역사는 <님의 혼님되심(神敬誠敬神)><sup>15)</sup>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와 미래 가운데

生成 躍動 躍進하고 있음이여.

이 그윽한 지평이,

이 거룩한 좌표가

우리 주 '예수사랑하시는 聖三位 하나님' 안에서

동터오누나.

칼빈은 여기에서 擇定 교리와 관련하여 '불가시적 교회'에 대하여 때때로 말하고 있다.<sup>16)</sup>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며 그 집회에 참여하는 바 가시적 교회의 의미를 약화시키고자 함은 물론 아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의미심장한 칼빈의 命題도 가시적 교회에 대한 진술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에라.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구별하는 어거스틴을 따르는 근거는 충분하다. 교회에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 안으로 올리운 자들과 그리고 우리 뒤를 이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 구성원이 될 미래 세대의 聖徒들이 포함될 것일 뿐만 아니라,<sup>17)</sup> 목하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라지[마귀의 자식]들도 있어 이 거룩한 공동체[교회]에 들지 못할 위인들도 있을 것이다.<sup>18)</sup> 여기에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정녕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 곧 불가시적 교회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입각하여 어거스틴과 칼빈의 교회관(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구분하는)을 우리 성경신학 역시 그대로 수용하는 바이다.

물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 지상 교회에서는 누가 가라지인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칼빈은 여기에서 한가한 兩 教會論(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을 사변적으로 전개하는 일을 삼가고 있다. 그가 불가시적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목하 현존하는 가시적 교회를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교정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 따름이다. 여기에서 칼빈에 의하면 - 이 견해는 또한 성경에 부합하는 것이어니와 - 지상적인 가시적 교회의 허물과 죄악 많은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 자체와 동일시할 수 없다.

이처럼 칼빈은 가시적 교회를 소중히 함과 동시에 예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는 안목도 가졌다. 우리도 가시적 교회를 -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 소중히 할 것이로되 그러나 - 뱀처럼 지혜롭게 - 그 어두운 실상도 예의 간파하면서 비판 교정해가는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기에(ecclesia semper reformanda).

## (5) 참 교회와 거짓 교회

16) OS 5. 12. 25

17) OS 5. 2. 8 . 5. 12. 12

18) OS 5. 3. 19 . 5. 12. 19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나누니까 교회에는 두 종류가 있는 듯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즉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는 듯이, 이 세상과 잘 통하며 적당히 세상에 동화되어 생존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저 편 하늘에 있을 진정하고(참되고) 순수한 교회가 있는 듯이 . . . .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만이 있을 뿐이다. 이 하나의 교회(실로 교회라고 일컬어질만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나아가서 聖三位 하나님)를 섬긴다. 이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는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나아가서 聖三位 하나님)를 증거하고 섬기는 교회만이 진정으로 교회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다. 이런 似而非 '교회'는 교회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 이런 사이비 '교회'는 우리를 속이는 거짓 '교회'요 - 우리를 永滅로 이끄는 -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참 교회를 알아 볼 수 있는 標識는 무엇인가?

칼빈은 말한다: 참 교회는 '純正한 진리를 좇는 교회, 곧 모세와 선지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sup>19)</sup>이다. 모세 곧 -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진- 율법과 - 이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어 하나님의 義를 이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외침을 선포하는 - 선지자, 그러니까 舊約(율법과 선지자)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연히 증거하는 新約,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정통적인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만이 참으로 참 교회인 것이다. 우리 성경신학 역시 성경 66권을 칼빈이 말하는 바처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고로 上記한 칼빈의 입장에 물론 全的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칼빈은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고백'(Confessio Augustana)(主後 1530년에 특히 멜랑흐톤에 의하여 작성된 루터파의 기본 신앙 고백)처럼 계속해서 말하기를 참 교회의 標識들(Merkmale der wahren Kirche)은 '말씀의 純正한 선포와 聖禮들의 正法한 執行'이라<sup>20)</sup> 한다. '교회는 外的인 說教를 통합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으며, 하나님에 의하여 설정된 교회의 職制를 한 마음으로 배워 보존하지 않는 한 聖徒들을 다른 그 무엇으로도 상호 연합되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겠다.'<sup>21)</sup>

당신의 증인들의 증거 가운데 '당신의 고유한 말씀이 울려나기'<sup>22)</sup>를 원하시는 주

19) CR 41. 482

20) OS 5. 13. 24 . 5. 14. 16 . CR 10b. 275 309

21) OS 5 10. 1

22) OS 5 9. 14

님 . . . 가르침 속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빛난다.<sup>23)</sup> 주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의 거울 속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sup>24)</sup> 그러므로 正統적인 가르침, 곧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의 純正한 선포야말로 참 교회의 한 標識인 것이다.

그러나 이 입으로 선포된 말씀보다 聖禮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現存을 보다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한다. 그러므로 이 물과 떡과 포도주로 집례되는 성례들은 참 교회의 또다른 標識인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 성경신학은 루터파 교회나 이 루터파의 敎義를 수용한 칼빈의 敎義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바이다.

실로 교회가 참 교회 되어지려면,

첫째로 성경 66권에 계시되어진 말씀이 정확히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 이 말씀의 정통적인 선포와 수용이 없는 곳에 참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참 교회의 標識는 바야흐로 정통적인 말씀 선포라 할 것이다.

오늘날 말씀의 정통적인 선포에 대하여 많은 오해들이 있다. 이를 케케묵은 無識 保守로, 혹은 民族魂을 팔아 먹는 것으로, 혹은 무언가 아직 정신적으로 젖을 덜 떼는 것으로 간주하는가 하면, 아예 - 사도적 진리의 생명 전승에 입각한 - 정통적인 말씀 선포에 대하여 제대로 훈련받음이 없이 제각각 '조작된 권위' 들을 가지고 생명의 진리에 대한 사도적 전승의 고리를 무시하여 생명의 흐름을 막거나 끊는 일이 非—非 再하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사도적 교회는 사도적 진리 전승을 소중히 할 줄 알아야 하고 이를 믿음의 後進들에게 소중하게 가르쳐서 聖三位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마침내 우리로 말미암아 온누리에 편만하게 넘쳐 흐르도록 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므로 참 교회의 標識가 무엇이나는 古典的인 물음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문제 제기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이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참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정통적인 말씀 선포이다.

정통적인 말씀 선포 내용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고전 1:23)시다;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요 1:18) · 나타내신 성자 하나님(요 1:14-18; 히 1:1-4) ·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요 16:8; 고전 2:10-11, 6:19-20) 곧 聖三位 하나님이다. 主體的으로는 우리 주 聖三位一體神(誠敬神/예수사랑하시는 하

23) OS 5. 9. 33

24) OS 5. 10. 18



나님]이시요, 團體的으로는 聖三位一體神國(誠敬神國/예수사랑의 공동체/神國/civitas Dei/바실레이아 투 데우)이요, 力動的으로는 聖三位一體神愛(誠敬神愛/예수사랑/誠心敬愛/誠敬/아가페)이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선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기뻐하심을 입은 모두에게는 평화를(눅 2:14) '생명적 진리를 전하는 사도적 전승'은 온누리를 향하여 선포한다. 이 정통적인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 정통적인 教義를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이단' (?)이라고 하는 자는 그 스스로가 바로 이단의 괴수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혹은, 온 교회가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사도적 진리 전승으로 받는 이 생명적 진리를 자신의 보호막으로 이용하려고 '聖三位一體神을 믿노라'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를 뿐만 아니라 모르면 진지하게 一生을 걸고 배우려는 정직하고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聖三位一體神 信仰을 假裝하는 자는 스스로도 망하고 교회를 소란케 하는 자이다. 우리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사탄의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여하한 경우라 할지라도 聖三位 하나님의 나라(예수사랑의 공동체)의 복음,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난 聖三位 하나님의 사랑(예수사랑/誠心敬愛)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一生을 걸고 온누리 만백성에게 이 福音を 온전히 그리고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과연 사도적 진리 전승이 무엇인가를 먼저 겸허히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차근차근히 그리고 철저적으로 -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예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연대하고 연합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정통적인 이 복음을 주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 聖禮 집행하는 가운데 - 전해야 한다. 즉 참 교회의 두번째 표지는 성실하고 올바른 聖禮 집행이라 할 것이다.

##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一大委任이다. 그 내용인즉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선포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洗禮(聖禮)를 베푸는 가운데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다. 이 至上 命諭의 내용은 그러니까 세 가지라 할 수 있겠다. ① 聖三位 하나님의 복음(聖三位一體



神/聖三位一體神國/聖三位一體神愛][誠敬神/誠敬神國/誠敬神愛]('예수사랑하시는 하나님' / '예수사랑의 공동체' / '예수사랑(誠心敬愛, 誠敬)') 선포, ② 聖禮 執行, ③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1번과 2번은 루터파나 칼빈이 참 교회의 標識로 삼는 바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성례 집행'에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교회의 標識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至上 命命을 따름이라는 사실을 새삼 覺醒하여 재인식해야 함이 명백해진다.

여기에서 루터파나 칼빈의 가르침을 우리는 전폭적으로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밝힘에 있어서 저들 우리의 믿음의 先進들 또한 미흡했었음을 아쉽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계시하는 만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마땅히 침묵하는 - 우리 성경신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至上 命命 혹은 至上 委任에 입각하여 참 교회의 標識는 ① '세계 만방을 향하여 正確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 ② '주께서 명하신 聖禮(洗禮와 聖晚餐)의 성실한 집행', ③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至上 委任에 따라 참 교회의 標識는 ① 복음 선포와 ② 성례 집행만이 아니라,

세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임을 認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사도적 진리 전승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온전하고 성실하게 따름인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신 말씀이 어디 한 두 말씀인가?

그렇다면 다른 군 말 할 것 없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도록 분부하신 말씀을 일일이 가르쳐 지키게 하면 되지 않는가? 물론 그러면 된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의 大義와 核心 그리고 中心과 重心이 무엇인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中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公生涯의 第一聲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



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였다.

우리 주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마 5-7)도 결국은 天國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선포하심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는 바’(마 13:34) 이 말씀의 중심은 언제나 천국 곧 하나님 나라였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사십 일 동안 말씀하심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다(행 1:3).

실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中心은 하나님 나라[聖三位一體神國/誠敬神國/예수사랑의 공동체]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重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우리 주님의 사역의 重心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함이였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요 14:7)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4).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사역의 重心은 또한 당신 자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聖子] 하나님을 계시하심이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의 重心은 또한 ‘또 다른 보혜사’(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곧 聖靈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이었다(특히 요 14-16).

실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重心은 聖父 聖子 聖靈 하나님[聖三位一體神/誠敬神/예수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核心은 무엇인가?

永生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라 하시는가(눅 10:25-28)?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마 22:37-40)하라 하시지 않던가?

하여,

우리 주님께서서는 성부 하나님을 온 정성으로 사랑하라[敬一] 하신다.

또한 당신 자신[聖子 하나님]을 온 정성으로 사랑하라[敬道] 하신다: “아비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

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마 10:37).

또한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敬人三) 하신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敬理)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목숨까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여의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19-20). 우리 주 하나님의 관심은 바야흐로 萬物 곧 萬世界의 구원에까지 미친다.

실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核心은 ‘예수사랑’ [誠心敬愛/誠敬][聖三位一體神愛/誠敬神愛][하나님 사랑/이웃 사랑][하나님 사랑/예수사랑/이웃 사랑/세계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의 大義는 主體的으로는 聖三位一體神(誠敬神/예수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단체적으로는 聖三位一體神國(誠敬神國/예수사랑의 공동체)이며 力動的으로는 聖三位一體神愛(誠敬神愛/예수사랑, 誠心敬愛, 誠敬)이다. 관심에 따라 주체적으로도, 단체적으로도, 역동적으로도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바의 大義를 말할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여야 할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은:

‘예수사랑’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 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 (수직적인) 예수사랑 안에 거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 13:34-35). - (수평적인) 예수사랑하라. 수직적으로든 수평적으로든 全方向 예수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분부하신 바인 것이다.

이렇게 예수사랑(誠心敬愛/誠敬)함으로써 바야흐로 이루어지는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永遠無窮絶對한 ‘예수사랑의 共同體’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사역의 중심으로 삼으신 바 하나님 나라 곧 天國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 1:3). 우리의 복음 사역의 최종 목적은 ‘聖三位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와의 사귄’을 모든 이들에게 열어 주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사랑하시는 聖三位 하나님(誠敬神)을 중심으로 예수사랑을

나누는 영원무궁절대한 예수사랑의 共同體'를 이룸, 그것이 바로 복음 사역의 최종 목적이요,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신 모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교회의 標識는 다만 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함'과 ②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성심으로 집행함'만이 아니라 또한 ③ 바로 '예수 사랑함' 혹은 '예수사랑의 공동체를 이룸'임을 알 수 있다.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聖子] 하나님의 분부하신 바의 모든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말씀이 결국 天國 곧 하나님 나라 곧 '예수사랑의 共同體'가 아니던가. 이 공동체에 나아가기 위하여 全方向으로 '예수사랑' [誠心敬愛/誠敬]하라 하심이 아니던가. 그렇다. 우리 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함이란 '예수사랑' [誠心敬愛]함을 선포함이요, '예수사랑의 공동체' [神國/天國]를 이룸을 선포함이다. 참 교회의 첫 標識로서의 '福音 宣布'는 그러니까 세번째 標識라 할 '예수 사랑함' [誠心敬愛/誠敬](나아가서 '예수사랑의 공동체를 이룸')을 선포함 이외에 다르지 않다.

그리고 '주께서 제정하신 聖禮들을 성심으로 집행함' 또한 '예수사랑'을 공고히 하고 '예수사랑의 공동체'를 確證함인 것이다.

洗禮: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마 28:19)를 주는 것은 天國 百姓으로서의 入國 비자를 발급함과 같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말은 물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로 오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聖三位 하나님 나라[聖三位一體神國/誠敬神國/예수사랑의 공동체]의 成員됨을 선언함이요 自認함인 것이다.

聖晚餐: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6-17). 우릴 代贖하시려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념(고전 11:24-25)하는 것은 그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사랑/誠心敬愛/誠敬]을 감격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념함이 아니며 그리하는 가운데 '예수사랑의 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하고 確證함이 아니던가.

여기에서 참 교회의 두번째 標識로서의 '성례 집행'도 세번째 표지라 할 '예수 사랑' [誠心敬愛/誠敬] 및 '예수사랑의 공동체' 이룸을 목적하고 있음이 자명해진다.

여기에서 참 교회의 표지로서 세 가지 곧 ① '복음 선포'와 ② '성례 집행'과 ③ '예수사랑'〔誠心敬愛〕을 말하지마는 결국은 참 교회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永遠無窮絶對한 標識는 오직 '예수사랑'〔誠心敬愛〕 및 이로써 이루어지는 '예수사랑의 共同體'〔神國/天國〕 하나에 다름 아님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참 교회의 영원한 標識라 함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때면 더 이상 지상에서와 같은 설교가 그칠 것이요 지상에서 행하던 성례도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로 하여금 참 교회가 되게 하는 - 지금 이 지상으로부터 영원세에 이르기까지 - 영원한 標識는 실로 '예수사랑함'〔誠心敬愛/誠敬〕이요 '예수사랑의 共同體'인 것이다.

하여튼 우리는 이 지상에서 참 교회의 세 가지 標識를 말하거니와, ① '예수사랑' 및 이로써 이루어지는 '예수사랑의 공동체'〔天國〕 '복음의 선포'와 ② '예수사랑' 및 이로써 이루어지는 '예수사랑의 공동체'를 확증하고 기념하며 공고히 하는 '성례 집행'과 마침내 ③ '예수사랑함'〔誠心敬愛/誠敬〕 및 이로써 이루어지는 '예수사랑의 공동체를 이룸'은 결국은 하나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여전히 세 가지로서 존속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매한 우리는 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늘 깨우쳐 확증하고 기억나게 함을 받아야 하며 이제 바야흐로 실증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實在로서의 '예수사랑' 및 '예수사랑의 공동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참 교회의 세 標識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합할 뿐만 아니라, 현대 신학에서 것처럼 강조하여 마지 않는 正統 教義(Orthodoxie)와 正統 行動(Orthopraxis)에의 요구도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실로 참 교회는 그 선포하고 가르치는 바 教義에 있어서 -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에 입각하고 생명 진리의 사도적 전승에 서서 - 정통적이어야 하겠고 이제는 그 행함에 있어서도 정통적이어야겠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기도 하다.